장애인 고용 촉진 캠페인 성료

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 연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일 "지난달 30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주관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에 참여, 장애인 고용 촉진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진〉

캠페인은 4월 장애인 고용 촉진 강조 기간을 맞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고용공단 광주본부는 행사장에서 취업·입학 상담을 위한 컨설팅 부스를 운영하고 광주 시민들과 함께 걷기대회에 참여하며 공단을 적극 홍보했다.

홍성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훈련센터 운영과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단의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헌법재판소 '중대재해법' 위헌 여부 가린다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책임 비해 처벌 과도"

헌법재판소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되고 중처법 적용이 지난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위헌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은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결정돼야 한다"며 "사업주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 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 할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준비가 되지 않거나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사업장이 많은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구인들을 대표해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태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은솔 기자

신협 광주전남본부, 작년 자산 15조9천억

어려운 여건 속 9천290억 성장…실적 우수 직원·조합 시상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일 "지난달 29일 웨딩그룹위더스 광주에서 2023년 사업평가 및 2024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3년 조합 사업 실적을 평가해 우수 직원 및 조합을 시상하고, 2024년 슬로건 '위기를 기회로, 재도약 광주전남'을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협은 ▲종합경영대상 ▲경영대상 ▲경영최우수상 ▲경영우수상 ▲경영특별상 등 5개 부문에 대해 29개 조합 시상을 진행했으며, ▲종합목표관리평가 우수직원 ▲우수지표 달성직원 ▲공제실적 우수직원 등 3개 부문에 대해 직원 17명 시상을 진행했다.

2022년 14조9천억원이던 광주전남신협의 자산은 지난해 어려운 금융여건에도 불구하고, 9천290억원(6.2%) 성장한 15조9천억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198억원을 기록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사업평가에 이어 올해 광주전남지역본부 사업계획을 ▲금리전략수립을 통한 수익구조의 회복 ▲내부유보 강화 ▲손실조합 축소 ▲상생문화 정착으로 밝히며 '위기를 기회로, 재도약 광주전남'이라는 2024년 캐치프레이즈를 선포했다.

신협중앙회 김영하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어려운 금융 여건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성장을 일궈낸 87개 조합 임직원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신협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조합원으로부터의 신뢰와 조합의 확실한 경쟁력을 기본으로 삼아 불확실성의 시대를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임채만 기자

창농기업 버팀 '숙면허니' 제품 출시

천연 벌꿀·흑하랑 상추로 숙면 케어 테라피 제품 개발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일 "지난해 청년창농타운 아이디어 경진에서 대상을 받은 ㈜버팀(대표 나창수)이 청년창농타운 제품지원센터 기술지원을 받아 '숙면허니'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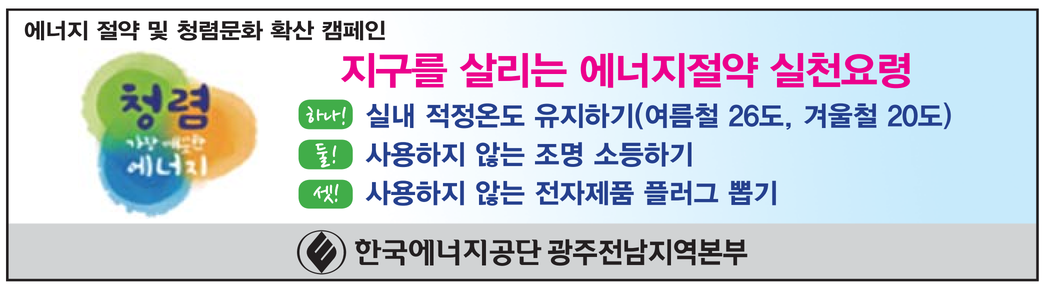
'숙면허니' 제품은 천연 진정제로 알려진 벌꿀에 흑하랑 상추 분말을 첨가해 제조한 스틱형 액상차로 수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불면증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흑하랑'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한 상추 품종으로 수면에 도움을 주는 '락투신' 성분이 일반 상추에 비해 124배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나창수 버팀 대표는 "건조한 흑하랑을 초미립 동결 분쇄해 유효 성분 파괴를 낮추고 체내 흡수율을 높였다"며 "지역 농산물과 천연 벌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농업기술원 청년창농타운 제품지원센터에서는 창농 아이디어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100여종의 식품 가공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매달 관련 가공상품화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신청은 청년창농타운 홈페이지(https://cntown.kr)에서 하면 된다.

박용철 전남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은 "창업농 아이디어 상품 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 활성화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CMYK